

한국 영아의 초기 의사소통 : 몸짓의 발달

The Development of Gesture in the Early Communication of Korean Infants

장유경(You-Kyung Chang-Song)¹⁾

최윤영(Yun-Young Choi)²⁾

김소연(So-Yeun Kim)³⁾

ABSTRACT

Korean infants' use of gesture was examined with 45 10-to 17-month olds. The mothers of infants were asked to check each word in the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Korean (MCDI-K) vocabulary checklist if their infant had a gesture for a given word and to indicate what kind of early communicative behavior she showed in 5 different situations. The results show that infants in this study have 11 gestures, of which many are learned within the context of routines or games. Referential gestures were rarely reported. There was no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gestures and the number of expressive words. However, more qualitative measures on early communicative behaviors show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requent use of gestures" and "try to communicate by verbal means".

Key Words : 참조적 몸짓(referential gestures), 표현어휘(expressive words), 의사소통 행동(communicative behaviors).

I. 서론

언어발달은 그 동안 음성언어의 발달과 관련하여 주로 연구되었다. 영아의 첫 한 마디는 상징적으로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발로 (Piaget, 1967)인 동시에 특히 타인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의 시작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언어발달의 연구는 주로 아동의 언어적 산출물의 발달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영아연구의 방법론적인 혁명에 힘입어 최근 연구자들(Goodwyn, Acredolo, & Brown, 2000; Butterworth, 2001;

¹⁾ 한솔교육문화연구원장

²⁾ 한솔교육문화연구원

³⁾ 한솔교육문화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You-Kyung Chang-Song, Hansol Education Research Center, F11, LG Mapo Bldg., 275 Gongduk-Dong, Mapo-Gu, Seoul 121-721, Korea E-mail : ykchang24@hanmail.net

Jusczyk, 2002; Tomasello, 1992; Werker, & Tees, 1984)은 음성언어가 시작되기 이전의 전조를 더 자세하게 관찰하였다. 그 결과 영아들은 음성언어를 사용하기 이전에도 9~10개월경이 되면 사물을 가리키거나, 엄마의 눈앞에 보여주거나, 사물을 나타내는 몸짓이나 임의적인 상징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면서 점점 언어에 능숙하게 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예 : 개를 나타내기 위해 '멍멍' 혹은 개가 헐떡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몸짓).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영아들에게는 1살도 되기 전에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도 있고 말하고자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살 경이 되어야 음성언어가 가능해진다(Bates, 1976). 이러한 시간적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연구자들은 음성이라는 양태를 그 이유로 든다. 이 견해에 따르면 발화는 수백 개의 성대 근육들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말할 수 있는 다른 능력과 의지가 생긴 한참 후에나 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수화(sign language)는 비슷한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영아들의 경우에도 손동작은 비교적 일찍 발달한다는 관찰에 기초하여 Bonvillian과 Folven(1987)은 수화가 음성언어보다 더 일찍 발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어린 영아의 수화어휘에 사용되는 손동작과 움직임은 생후 6개월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Bonvillian, Orlansky, & Folven, 1990).

1. 몸짓의 정의와 종류

몸짓(gesture)은 주로 몸의 상체 앞 공간에서 상징적인 표현을 위해 손과 팔을 움직이는 것으로 정의되며(McNeill, 1998), 거의 모든 문화

권에서 화자들이 말을 하며 몸짓을 사용한다(Feyereisen & deLannoy, 1991). 심지어는 몸짓을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맹인들조차도 언어의 일부로 몸짓을 사용한다(Iverson, 1998).

실제로 말하기 이전 영아들은 음성언어 이외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는 다른 수단으로 몸짓을 사용한다(Bates, 1976; Petitto, 1988). 따라서 말하기 이전 영아들에게서 나타나는 몸짓과 손짓은 의사소통의 초기적인 형태이며, 초기 상징 발달의 중요한 단계로서 음성언어의 발달을 돕는다(Goldin-Meadow, 1999; Goodwyn & Acredolo, 1993). 영아들은 대개 10개월 전후하여 지시적 몸짓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지시적 몸짓은 몸짓이 의미하는바가 몸짓의 형태에 의해 정해지지 않고 완전히 맥락에 의해서 정해지며 지시어(deictic)의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른의 주의를 끌기 위해 처음엔 사물을 들어 보일 수도 있고 나중에는 사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도 있다.

지시적인 몸짓과 함께 좀 나이 든 영아들은 모든 문화에 보편적인 관습적인(conventional) 몸짓, 예를 들어, 끄덕 끄덕 하거나, 고개를 설레설레 젓거나 하는 몸짓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영아들은 그리 수가 많지 않고 아이마다 다르지만 참조적(referential) 혹은 사상적(iconic) 몸짓을 사용한다(Acredolo & Goodwyn, 1988). 지시적인 몸짓과는 달리 참조적 몸짓의 형태는 의도하는 참조물의 형태를 반영하며 따라서 그 의미가 맥락에 덜 의존적이다. 예를 들어, 한 아이는 물고기를 지칭하기 위해 자신의 입을 열었다 닫았다하고 새를 지칭하기 위해 손바닥을 쳤다. 영아들이 은유적인 몸짓을 사용하는 시기는 상대적으로 뒤에 나타난다(McNeill, 1992).

2. 몸짓과 음성언어의 발달

Capirci, Montanari와 Volterra(1998)가 이태리어를 습득하는 유아들을 관찰하였더니 12명중 6명은 16개월경 단어보다도 몸짓을 더 자주 사용했다. 20개월경에는 그 수가 2명으로 줄었다. 정상 영아들에게 있어 몸짓은 한 단어 시기동안 언어와 통합되기 시작한다(Butcher & Goldin-Meadow, 1998). 한 단어 시기의 초기에 몸짓은 의미가 있든 없든 말소리를 동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주 사용 되다가 곧이어 몸짓이 말소리와 통합되면서 몸짓과 의미 있는 단어의 조합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시간적으로도 동시성을 띄게 된다(McNeill, 1992).

몸짓-말소리가 통합된 초기에는 몸짓과 말소리가 동일한 정보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상자를 가리키며 'box'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경우이다. 그러나 점차 몸짓과 말이 서로 다른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영아는 몸짓으로는 사물을 가리키며 말로는 그 사물에 가해져야 할 행위를 말하거나(사과를 가리키며 'give'라고 말하는 경우), 몸짓으로 사물을 가리키며 말로는 그 사물의 주인을 말한다(장난감을 가리키며 'mine'이라고 말할). 몸짓과 말이 시간적으로 의미적으로 통합된 체계로 기능 한 이후에 몸짓과 말이 서로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결합이 나타나는 것은 두 시스템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작용하는 결과로 보인다.

몸짓과 말이 서로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결합은 곧 두 단어 조합의 시작을 예언한다. Goldin-Meadow와 Butcher(1998)는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유아 6명을 대상으로 말과 몸짓의 조합이 나타나는 시기와 두 단어 조합의 시간간의 매우 높고, 신뢰로운 상관성이 있음을 발견

하였다. 다시 말해, 말과 몸짓이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결합을 처음 사용하였던 유아가 두 단어조합도 제일 먼저 사용하였다. 한 명제의 두 의미적 요소를 전달하기 위해 몸짓과 말을 사용하는 능력은 한 발화 중에 두 요소를 사용하는 능력의 전조가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어발달의 초기에 나타나는 몸짓이 영아들의 초기언어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들을 보았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몸짓-음성언어(혹은 몸짓-사인)의 조합이 두 단어 시기를 매우 신뢰롭게 예언하였으며 Goodwyn과 Acredolo(1998)는 몸짓이 언어발달의 지연을 진단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영아들에게 몸짓을 가르쳤을 때, 몸짓의 사용이 음성언어의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으리라는 우려와는 달리 음성 언어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실제로 음성언어와 함께 몸짓을 배운 영아들의 경우, 몸짓이 음성언어보다 유의하게 빨리 나타났으며(Goodwyn & Acredolo, 1993), 몸짓을 배운 집단이 언어적 자극만 받은 집단에 비해 언어발달이 촉진되었다(Goodwyn, Acredolo, & Brown, 2000). 몸짓을 사용하는 영아들의 음성언어 발달이 촉진되는 결과는 몸짓이 말소리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언어발달의 초기에 말소리와 함께 통합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몸짓의 사용이 영아의 음성언어의 발달을 돕는 것으로 생각된다.

언어이전의 의사소통능력의 발달로서, 혹은 언어발달의 지연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수단이나 언어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한 단어 시기 몸짓의 발달이 음성언어발달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영아의 몸짓에 대한 연구 자료는 전무하다. 특히 기존의 몸짓에 관한 연구들

이 주로 미국이나 이태리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인데 미국, 이태리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성인들의 몸짓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의 성인들이 몸짓을 덜 사용한다면 한국 영아들의 경우에도 몸짓의 사용이 덜 빈번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단어 시기 한국 영아들의 몸짓의 발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초기 언어발달에서 어떠한 몸짓들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몸짓의 발달이 음성언어의 발달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탐색하고자한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 영아의 몸짓의 발달은 어떠한가?

1.1 10개월 ~ 16개월의 영아들은 평균 몇 개의 몸짓을 가지고 있는가?

1.2 이들이 사용하는 몸짓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

1.3 몸짓에는 성차 및 월령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영아들이 나타내는 몸짓을 어휘범주로 나타내었을 때 어떤 의미범주가 몸짓으로 많이 나타나는가? 몸짓의 구성에는 발달적인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MCDI-K : 영유아용에 나타난 초기의사소통 상황에서 가리키기, 관련행동 등으로 나타나는 몸짓은 월령집단별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몸짓과 표현어휘, 이해어휘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한 단어 시기 영아의 몸짓발달과 이해어휘, 표현어휘를 포함한 초기 의사소통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10개월부터 17개월 미만의 영아 45명을 표집하였다. 선행연구(Goodwyn & Acredolo, 1998)에 의하면 12~15개월 사이에서 몸짓이 왕성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 시기를 포함하여 10개월부터 17개월 미만의 영아가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영아들의 자세한 월령별 구성과 남녀 구성은 <표 1>과 같다. 영아들은 월령에 따라 10.1개월 ~ 13.5개월(M=11.80, SD=.10)의 저월령 집단(남15, 여8)과 13.6개월 ~ 16.8개월(M=15.03, SD=.97)의 고월령 집단(남13, 여9)으로 나뉘었다.

<표1> 월령 및 성별 사례 수 (N=45)

	저월령 (N=23)		고월령 (N=22)		전 체 (N=45)	
	남 (N=15)	여 (N=8)	남 (N=13)	여 (N=9)	저월령 (N=23)	고월령 (N=22)
평균 월령 (SD)	11.71 (.84)	11.95 (1.29)	15.06 (1.04)	14.99 (.92)	11.80 (.10)	15.03 (.97)

2. 연구도구

영아의 몸짓 및 초기 의사소통 발달(표현어휘, 이해어휘, 의사소통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MCDI-K : 영유아용(배소영, 2002)을 사용하였다. MCDI-K는 현재 세계적으로 영아의 어휘발달(이해어휘, 표현어휘)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이하 MCDI, Fenson, Dale, Reznick, Thal, Bates, Hartung, Pethick & Reilly, 1991)를 한국어로 옮기고, 한국 영아들에게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한 것이다. 한국어판 MCDI-K는 10여 년에 걸쳐 한국 영유아들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 되었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배소영, 2003).

MCDI-K : 영유아용은 총 284 개의 어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163개(약 57%)의 명사와 43개(15%)의 동사, 그리고 20개(7%)의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용에는 표현어휘, 이해어휘 이외에 의사소통 행동을 체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3. 연구절차

1) 어휘수 측정

MCDI-K의 체크리스트 작성은 아동학 석사 출신의 검사자가 MCDI-K의 사용법을 숙지한 뒤 영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영아의 어머니에게 사용법을 설명하고 어머니가 직접 작성하였다. 각 어휘마다 영아가 말로 직접 표현하는 어휘일 경우 표현어휘에 체크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영아의 행동이나 몸짓으로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판단되는 어휘일 경우 이해어휘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2) 몸짓수의 측정

영아들이 나타내는 몸짓을 체크하기 위해 MCDI-K의 어휘체크가 끝난 뒤에 동일한 어휘에 대해 영아가 사용하는 몸짓이 있는지를 다시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몸짓은 첫째, 특정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으로 일반화되어 사용되어야 하고, 둘째, 단순 모방이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

발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어야 했다.

3) 의사소통 행동의 측정

MCDI-K : 영유아용을 사용하여 어휘와 몸짓을 체크하고 난 뒤에 어휘리스트의 뒷부분에 포함된 의사소통 행동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영아들의 의사소통 욕구가 가장 잘 나타나는 5개의 상황(배고플 때, 좋아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원하는 장난감이 있을 때, 같이 책을 보고 싶을 때, 밖에 나가고 싶을 때)에 대해 다양한 의사소통 행동(가리키기, 관련된 행동하기, 끌고 가기 등)의 표현정도를 전혀 안함, 가끔, 자주 중 하나로 답하게 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영아의 어머니가 작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이해어휘, 표현어휘, 의사소통 행동, 몸짓으로 구분하여 SPSSWin 10.0 프로그램으로 상관분석 및 ANOVA를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몸짓의 발달

연구에 참여한 영아들의 몸짓의 수와 함께 이들의 표현어휘와 이해어휘 수를 알아보았다(표 2). 그 결과 대상 영아들은 평균 11.0개의 몸짓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평균 표현어휘수는 8.4 개, 이해어휘수는 60.5 개였다. 대상 영아들의 몸짓의 수와 표현어휘수, 이해어휘수에 있어 성별, 월령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표 2> 월령집단 및 성별 몸짓과 표현 및 이해어휘의 평균과 표준편차 (N=45)

		몸 짓 M (SD)	표현어휘 M (SD)	이해어휘 M (SD)
저 월 령	남 (N=15)	7.07 (3.25)	4.87 (2.02)	45.0 (6.57)
	녀 (N=8)	7.5 (4.45)	4.25 (2.76)	29.75 (9.00)
고 월 령	남 (N=13)	19.00 (3.49)	12.85 (2.17)	83.61 (7.10)
	녀 (N=9)	9.00 (4.20)	11.67 (2.61)	80.22 (8.48)

위해 각각에 대해 월령집단(2)×성별(2)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몸짓과 표현 및 이해어휘수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모두에 있어 월령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몸짓 : $F(1,43)=3.08, p<.10$, 표현 : $F(1,43)=11.44, p<.001$, 이해 : $F(1,43)=31.46, p<.001$), 고월령 집단의 영아들이(몸짓 : $M=14.91, SD=17.69$, 표현 : $M=12.36, SD=10.09$, 이해 : $M=82.23, SD=24.73$) 저월령 집단의 영아들(몸짓 : $M=7.28, SD=4.48$, 표현 : $M=4.65, SD=4.14$, 이해 : $M=39.70, SD=26.08$)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언어발달 초기 어휘 획득과정에서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장유경, 2004; Tamis-LeMonda, Bornstein, Kahana-Kalman, Baumwell, & Cyphers, 1998) 본 연구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연구 대상 영아의 표집이 비교적 적었고 특히 남아가 여아에 비해 많아 언어발달에 있어 개인차가 심한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어휘수가 많은 남아들이 표집 인원내 더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몸짓 사용에서의 성차부분은 추후 더 많은 영아들을 대상으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과를 요약하면, 대상 영아들은 11개 정도의 몸짓을 나타내었고, 8개 정도의 표현어휘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해어휘는 표현어휘보다 7배 가량 많았다. 월령이 증가할수록 몸짓의 수와 표현 및 이해어휘수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아에게 많이 나타나는 몸짓의 내용

10개월 ~ 16개월까지의 영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몸짓의 종류를 상위 1위 ~ 20위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 시기의 영

<표 3> 영아들이 많이 사용하는 몸짓 20위 빈도(%)

(N=45)

순위	단어범주	단 어	빈 도(%)	순위	단어범주	단 어	빈 도(%)	
1	일상생활	짜짜꿍	29 (64.4)	11	동사	취/주세요	9 (20.0)	
2		곤지곤지	28 (62.2)	12		사랑해	8 (17.8)	
3		까꿍	25 (55.6)	13	일상생활	지지	8 (17.8)	
		뽀뽀	25 (55.6)	14	가정용품	전화	6 (13.3)	
5		잼잼	24 (53.3)	15	일상생활	아니	5 (11.1)	
6		도리도리	23 (51.1)			동사	누워	5 (11.1)
		빠이빠이	23 (51.1)				(모자)씨	5 (11.1)
8		만세	22 (48.9)				안아	5 (11.1)
9		안녕	15 (33.3)				앉아	5 (11.1)
10	동사	박수쳐	12 (26.7)	소리	똑똑	5 (11.1)		

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내는 몸짓은 “짜짜꿍”, “곤지곤지”, “까꿍”, “뽀뽀”, “챜챜” “도리도리”, “빠이빠이” 등으로 이 시기 영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게임이나 말놀이에 수반되는 행동들이었다. 또한 몸짓의 특성상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예 : 박수 쳐, 사랑해)가 명사(예 : 전화)보다 더 많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영아에게 사물의 이름을 가르치기 위해 몸짓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어린 영아들이 하는 관습적인 놀이들(짜짜꿍, 곤지곤지, 챜챜 등)과 영아가 행동하기를 원하는 특정 동작들의 수행을 위해

동작을 가르치거나 영아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의 결과를 이 시기 미국 영아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초기 몸짓에 대한 연구(Acredolo & Goodwyn, 1988)와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대조되어 드러난다. 16~18개월 미국 영아들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몸짓은 사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flower”, “dog”, “horse” 등이었고, 이외에 요청인 “out”, “up”, 형용사에 해당하는 “hot”, “all gone” 등이 있었다. 즉, 미국 영아들의 경우에 몸짓으로 표현되는 어휘와 음성언어(표현어휘)로 표현되는 어휘가 매

〈표 4〉 몸짓, 표현, 이해 어휘에 있어 범주별 구성비율 % (SD)

어휘 범주		몸 짓	표현어휘	이해어휘
1. 명사류	저월령	7.88 (16.27)	80.19 (27.56)	55.13 (15.11)
	고월령	23.51 (14.46)	74.40 (22.27)	56.74 (9.80)
	전 체	15.69 (15.38)	77.29 (24.93)	55.94 (12.71)
2. 일상생활	저월령	82.42 (26.45)	8.85 (15.77)	26.98 (12.71)
	고월령	39.98 (27.42)	16.54 (13.29)	15.55 (5.26)
	전 체	61.20 (29.52)	12.70 (14.93)	21.27 (11.31)
3. 동 사	저월령	8.49 (8.47)	2.25 (7.35)	10.63 (6.94)
	고월령	29.46 (14.71)	3.22 (10.91)	16.88 (7.05)
	전 체	18.97 (14.59)	2.74 (9.20)	13.75 (7.69)
4. 형용사	저월령	1.21 (3.05)	8.30 (21.83)	6.41 (4.72)
	고월령	6.84 (7.13)	2.86 (5.31)	4.83 (2.73)
	전 체	4.02 (5.71)	5.58 (15.94)	5.62 (3.88)
5. 대명사	저월령	0	.41 (1.94)	.30 (1.11)
	고월령	0.29 (2.02)	1.27 (3.91)	.66 (1.10)
	전 체	0.14 (1.33)	.84 (3.08)	.48 (1.20)
6. 양 / 수 / 정도	저월령	0	0	.31 (1.23)
	고월령	0.89 (1.12)	.56 (2.67)	.97 (1.23)
	전 체	0.44 (.75)	.28 (1.88)	.64 (1.23)
7. 기능어	저월령	0	0	.24 (1.92)
	고월령	0	1.15 (5.33)	4.37 (18.05)
	전 체	0	.57 (3.77)	2.30 (12.73)

우 유사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 영아들의 경우에는 표현어휘는 주로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에, 몸짓은 놀이에 사용되는 동작과 동사/형용사의 범주에 해당하였다.

3. 몸짓과 표현 및 이해어휘에서 어휘 범주 구성의 발달적인 차이

영아들의 월령에 따라 몸짓과 표현어휘, 이해어휘가 어떠한 종류의 어휘들로 구성되는가, 그리고 어휘의 구성이 발달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해 MCDI-K의 어휘들을 Bates, Marchman, Thal, Dale, Reznick, Reilly, & Hartung(1994)의 어휘 범주 기준에 따라 명사류(보통명사, 사람, 소리, 장소 및 공간, 외부사물), 일상생활, 동사, 형용사, 대명사, 양/수/정도관련 어휘, 문법적 기능어로 나누고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와 같이 이시기 영아들의 몸짓은 일상생활(61.20%)과 동사(18.97%)에 해당하는 것이 많았으며 그 다음이 명사류(15.69%)에 속하였다. 명사류에는 사람(예 : 엄마), 소리를 나타내는 몸짓(예 : 푹푹)과 보통명사(예 : 전화)가 포함되었는데 이중 보통명사에 해당하는 사물을 나타내는 몸짓은 13.61%였다. 다시 말하면, 이시기 영아들의 몸짓은 대상을 나타내는 참조적인 몸짓(보통명사)보다는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말놀이나 게임 등에 사용되는 관습적인 몸짓이 대부분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표현 및 이해 어휘는 대부분이 명사류(표현 : 77.29%, 이해 : 55.94%)와 일상생활(표현 : 12.70%, 이해 : 21.27%)에 속하는 어휘였다. 반면 동사는 표현어휘의 2% 정도에 해당하였다. 이는 8개월~17개월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을 본 장유경(2004)의 연구에서 명사류와 일상생활 어휘가 영아들의 초기 표현어

휘 중 90%, 이해어휘 중 70% 가량을 차지하며 동사가 5% 미만이라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영아의 월령에 따라 몸짓과 표현 및 이해어휘의 구성비율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몸짓은 일상생활($F(1,35)=5.92, p<.05$), 동사($F(1,35)=21.24, p<.001$), 형용사($F(1,35)=7.14, p<.05$)에서 영아의 월령에 따라 구성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몸짓에 있어 영아의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사(저월령 : 8.49%, 고월령 : 29.46%)와 형용사(저월령 : 1.21%, 고월령 : 6.84%)의 구성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일상생활(저월령 : 82.42%, 고월령 : 39.98%)은 구성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몸짓의 비율 중 짹짹, 끈지끈지와 같은 관습적인 놀이와 관련되는 몸짓이 줄고, 오히려 동사와 형용사에 해당하는 몸짓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몸짓에 있어 사물을 나타내는 참조적 몸짓의 비율은 월령이 증가하여도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에 표현어휘에서는 일상생활($F(1,40)=4.09, p<.05$)에서, 이해어휘는 일상생활($F(1,40)=13.41, p<.001$), 동사($F(1,41)=10.34, p<.01$)에서 영아의 월령이 증가할수록 구성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영아들의 초기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타난 몸짓

지금까지는 MCDI-K의 개별 어휘에 대해 영아들이 해당 어휘에 대해 몸짓을 표현하는가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영아들이 나타내는 몸짓 또는 의사소통 행동들을 알아보기 위해 영아가 실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5개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영아의 행동을 물어보는 MCDI-K의 의사소통문항을 분석하였다. 의사소통 행동은 5개의 각 상황에서 6가지의 의사소통

<표 5> 월령 집단에 따른 영아의 의사소통행동 변량분석 결과 (N=45)

	저월령 (N=23)	고월령 (N=22)	전체 (N=45)	F	p
가리킴	4.22 (2.95)	8.23 (1.85)	6.18 (3.18)	34.36	.00
관련행동을 함	3.17 (1.92)	3.40 (2.60)	3.29 (2.25)	.50	.46
끌고 감	2.87 (1.87)	6.91 (2.71)	4.84 (3.07)	31.51	.00
비슷하나 분명치 않은 표현을 함	1.96 (1.43)	2.77 (2.22)	2.36 (1.88)	4.39	.04
이름 말함	.35 (.76)	.95 (1.29)	.64 (1.09)	5.38	.03
문장으로 표현	.04 (.21)	.05 (.21)	.04 (.21)	.01	.94

행동(가리키기, 관련된 행동을 함, 끌고가기, 비슷하나 분명치 않은 표현을 함, 이름을 말함, 문장으로 말함)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5>를 보면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 시기 영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가리키기($M=6.18$, $SD=3.18$)와 끌고가기($M=4.84$, $SD=3.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몸짓발달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지시적인 몸짓들이다. 여기서도 ‘관련된 행동을 한다’라는 문항으로 나타나는 사물이나 행동을 상징하는 참조적 몸짓은 3가지 몸짓 관련 문항 중 가장 적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각 의사소통 행동에서 월령 및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행동에서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리키기($F(1,41)=34.36$, $p<.001$), 끌고가기($F(1,41)=31.51$, $p<.001$), 비슷하나 분명하지 않은 표현을 함($F(1,41)=4.39$, $p<.05$), 이름을 말함($F(1,41)=5.38$, $p<.05$)에 있어서는 월령집단의 차이가 유의하였고, 고월령(가리키기 : $M=8.23$, $SD=1.85$, 끌고가기 : $M=6.91$, $SD=2.71$, 비슷하나 분명하지 않은 표현을 함 : $M=2.77$, $SD=2.22$, 이름을 말함 : $M=.95$, $SD=1.29$)이 저월령(가리키기 : $M=4.22$, $SD=2.95$, 끌고가기 : $M=2.87$, $SD=1.87$, 비슷하나 분명하지 않은 표현을 함 : $M=1.96$, $SD=1.43$, 이름을 말함 : $M=.35$, $SD=.76$)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여기

서도 ‘관련된 행동을 한다’로 표현된 참조적 몸짓은 월령증가에도 불구하고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5. 몸짓과 표현 및 이해어휘의 관계

영아의 월령, 몸짓사용과 표현 및 이해어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령은 몸짓의 수($r=.32$, $p<.01$), 이해어휘수($r=.61$, $p<.01$)와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표현어휘수($r=.56$, $p<.01$)와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해어휘수와 표현어휘수($r=.47$, $p<.01$)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몸짓이 음성언어의 발달을 돕는다면 표현어휘수와 몸짓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표 6> 몸짓과 표현 및 이해 어휘의 상관

	월령	표현어휘수	이해어휘수	몸짓의 수
월령	1.00			
표현어휘수	.56**	1.00		
이해어휘수	.61**	.47**	1.00	
몸짓의 수	.32**	-.07	.24	1.00

** $p<.01$

예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둘 간의 유의한 상관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표현 어휘수와 상관관을 나타내는 몸짓들은 대부분이 참조적인 몸짓(Acredolo & Goodwyn, 1988)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 영아들이 보이는 몸짓들은 주로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말놀이나 게임 등에 사용되는 관습적인 몸짓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어휘의 범주들 중에 관습적인 몸짓이 대부분인 일상생활 범주의 어휘들을 제외하고 영아의 월령, 표현 및 이해어휘와 몸짓간의 상호관계를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령과 몸짓($r=.32, p<.01$), 월령과 표현어휘수($r=.56, p<.01$), 월령과 이해어휘수($r=.61, p<.01$)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이 나타났고, 표현어휘수와 이해어휘수($r=.47, p<.01$)간에도 유의한 상관관을 보였다. 더불어 몸짓과 이해어휘수($r=.32, p<.05$)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으나 몸짓과 표현어휘수간에는 유의한 상관관이 없었다. 몸짓 중 일상생활관련 몸짓을 제외하고도 몸짓과 표현어휘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나오지 않은 것은 몸짓이 초기 상징 발달의 중요한 단계로서 음성언어의 발달을 돕는다(Goldin-Meadow, 1999; Goodwyn & Acredolo, 1993)는 선행연구들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유아들에게서 나타나는 몸짓의 수나 표현어휘수가 아직 너무 작아서 둘 사이의 상관관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들의 향후 어휘발달을 더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영아들에게서 나타나는 몸짓과 손짓은 의사소통의 초기적인 형태이며, 몸짓과 음성언어, 특히 표현어휘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다른 방법으로 앞서 살펴 본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6개 의사소통 행동들 사이의 상관관을 분석하였다.

<표 7> 일상생활의 몸짓을 제외한 뒤 몸짓과 표현 및 이해 어휘의 상관

	월령	표현어휘수	이해어휘수	몸짓의 수
월령	1.00			
표현어휘수	.56**	1.00		
이해어휘수	.61**	.47**	1.00	
몸짓의 수	.36**	-.02	.32*	1.00

* $p<.05$ ** $p<.01$

그 결과 영아들의 월령과 가리킴($r=.59, p<.01$), 끌고감($r=.62, p<.01$), 이름을 말함($r=.35, p<.05$), 몸짓으로 표현함($r=.57, p<.05$)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것은 앞서 몸짓과 표현어휘수의 상관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영아가 실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5개의 상황에서는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과 언어로 표현하는 것 간에는 높은 상관($r=.58, p<.01$)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언어표현 상황 중에서도 “비슷하나 분명치 않은 표현을 한다”가 가리킴, 관련행동, 끌고 감의 몸짓과 모두 유의한 높은 상관(순서대로 $r=.51, r=.45, r=.43$)을 나타내어 아직은 표현어휘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향후에는 표현어휘와 몸짓 간의 유의한 상관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예측을 지지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몸짓과 언어발달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참조적인 몸짓이 많은 영아는 이해하는 어휘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현어휘수와는 정적 상관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몸짓과 어휘수 대신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들 간의 상관관을 보았을 때는 몸짓(가리키기, 끌고 감, 관련행동을 함)과 언어표현 사이의 유의한 상관관이 나타나서 향후 몸짓과 표현어휘수 사이의 정적 상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표 8〉 영아가 실제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사소통행동 상관

	월령	가리킨다	관련 행동을 함	끌고 감	몸짓 전체	비슷하나 분명치 않은 표현	이름 말함	문장으로 표현	언어전체
월령	1.00								
가리킴	.59**	1.00							
관련 행동을 함	.05	.31*	1.00						
끌고 감	.62**	.72**	.19	1.00					
몸짓전체	.57*	.91**	.56**	.86**	1.00				
비슷하나 분명치 않은 표현	.70	.51**	.45*	.43**	.59**	1.00			
이름 말함	.35*	.36*	.27	.06	.28	.32*	1.00		
문장으로 표현	.00	.19	.36*	.12	.26	.19	.27	1.00	
언어전체	.20	.55**	.49**	.36*	.58**	.90**	.69**	.34*	1.00

** $p < .01$ * $p < .05$

본 연구는 한국 영아들의 몸짓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어휘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표현어휘, 이해어휘와 함께 몸짓으로 나타나는 어휘들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10~16개월 영아들은 평균 11개 정도의 몸짓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일상생활 어휘로 말놀이나 게임에서 사용되는 몸짓들이었다. 이외에는 동사와 형용사에 해당하는 몸짓들이 주로 포함되었다. 즉 한국 영아들의 몸짓에는 사물을 나타내는 참조적 몸짓이 드물었으며, 이는 명사류가 주종인 표현어휘와는 많이 달랐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미국 영아들의 몸짓과도 달랐다. 몸짓은 영아의 월령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주로 동사, 형용사를 나타내는 몸짓이 증가하였고, 일상생활 범주에 해당하는 몸짓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초기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타나는 영아들의 몸짓은 가리키기와 끌고가기로 나타났으며 사물을 표현하는 참조적 몸짓은 적게 나타났다. 몸짓과 표현 및 이해어휘 발달(음성언어발달)의 관계를 알아보았을 때 몸짓의 수와 이해어휘수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표현어휘수와는 정적상관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만 보았을 때는 선행연구에서 시사하는 바와 달리 몸짓과 표현어휘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MCDI-K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사소통행동들 간의 상관을 보았을 때는 몸짓과 언어표현사이에 유의한 정적상관이 관찰되었다. 몸짓과 표현어휘와의 관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추적되어야겠지만 이상의 결과는 몸짓이 음성언어와 통합된 체계를 구성하며 음성언어의 발달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 영아들의 경우, 음성언어발달과 관계되는 참조적 몸짓의 사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아기 베이비사인의 효과를 보여주는 선행연구(Goodwyn, & Acredolo, 1993, 1998; Goodwyn, Acredolo, & Brown, 2000)에서처럼 초기 의사소통 상황에서 말놀이나 게임 이외에도 사물을 나타내는 참조적 몸짓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영아의 음성언어발달을 촉진시킬 가능성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에 참여한 영아중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아서 남녀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점이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성비의 균형을 유의하여 맞추어야 몸짓발달에서 성차가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몸짓에 대해 부모보고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향후의 연구에서는 장기간 영아를 관찰한 관찰 자료를 수집하여 부모보고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배소영(2002). MCDI-K 영유아용. 한국영아발달연구센터.
- 배소영(2003). 영유아기 의미평가도구 MCDI-K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 8, 2, 1-14.
- 장유경(2004).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 8개월 ~ 17개월.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3, 1, 77-99.
- Acredolo, L. P., & Goodwyn, S. W.(1988). Symbolic and gesturing in normal infants. *Child Development*, 59, 450-466.
- Bates, E.(1976). *Language and context : The acquisition of pragmatics*. Orlando Academic Press.
- Bates, E., Marchman, V., Thal, D., Fenson, L., Dale, P., Rezenik, S., Reilly, J., & Hartung, J.(1994). Developmental and stylistic variation in the composition of early vocabulary. *Journal of Child Language*, 21, 85-124.
- Bonvillian, J. D., & Folven, R. J.(1987). The onset of signing in young children. In W. H. Edmondson and F. Karlsson(Eds.), *SLR '87 : Papers from the four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sign language research*. Clevedon, England.
- Bonvillian, J. D., Orlansky, M. D., & Folven, R. J. (1990). Early sign language acquisition. In V. Volterra and C. J. Erting(Eds.), *From gesture to language in hearing and deaf children*. New York : Springer-Verlag.
- Butcher, C., & Goldin-Meadow, S.(1998). Gesture and transition from one- to two-word speech : When hand and mouth come together. In D. McNeil (Ed.), *Language and gesture : Window into thought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tterworth, G.(2001). *Joint visual attention in infancy*. In G. Bremner & A. Fogel (Eds.). *Blackwell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MA : Blackwell Publishers Ltd.
- Capirci, O., Iverson, J., M., Pizzuto, E., & Volterra, V. (1996). Gestures and words during the transition to two-word speech. *Journal of Child Language*, 23, 645-673.
- Capirci, O., Montanari, S., & Volterra, V.(1998). Gesture, sign, and words in early language development. In J. M. Iverson & S. Goldin-Meadow(Eds.), *The nature and functions of gesture in children's communications*. pp.45-60. Jossey-Bass, San Francisco, CA.
- Church, R. B., & Goldin-Meadow, S.(1986). The mismatch between gesture and speech as an index of transitional knowledge. *Cognition*, 23, 43-71.
- De Laguna, G.(1927). *Speech : its function and development*.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IN.
- Feyereisen, P., & De Lannoy, J. D.(1991). *Gestures and speech : Psychological investig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in-Meadow, S., & Butcher, C.(1988). Pointing toward speech in young children. In S. Kita (Ed.), *Pointing : Where language, culture, and cognition mee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in-Meadow, S., & McNeill, D.(1999). The role of gesture and mimetic representation in making language the province of speech. In M. C. Corballis and S. Lea (Eds.), *The Descent of*

- mind*. pp. 137-54. Oxford University Press.
- Goldin-Meadow, S., & Morford, M.(1985). Gesture in early child language : studies of deaf and hearing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31, 145-176.
- Goodwyn, S., Acredolo, L., & Brown, C. A.(2000). Impact of symbolic gesturing on early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4, 81-103.
- Goodwyn, S. W., & Acredolo, L. P.(1998). Encouraging symbolic gestures : A new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sture and speech. In J. M. Inverson & S. Goldin-Meadow(Eds.), *The nature and functions of gesture in children's communications*. pp. 61-76. Jossey-Bass, San Francisco, CA.
- Goodwyn, S. W., & Acredolo, L. P.(1993). Symbolic gesture versus word : Is there a modality advantage for onset of symbol use? *Child Development*, 64, 688-701.
- Greenfield, P., & Smith, J.(1976). *The structure of communication in early language development*. Academic Press, New York.
- Kendon, A.(1980). Gesticulation and speech : Two aspects of the process of utterance. In M. R. Key (Ed.), *Relationship of the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Mouton, The Hague.
- Juszyk, P. W.(2002). Language development : from speech perception to first words. In A. Slater & M. Lewis (Eds.), *Introduction to infant development*. NY : Oxford University Press.
- McNeill, D.(1992). *Hand and mind : What gesture reveals about thought*.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Neill, D.(1998). Speech and gesture integration : *The nature and functions of gesture in children's communication*, 11-27. Jossey-Bass Publishers.
- Petitto, L. A.(1988). Language in the pre-linguistic child. In F. Kessel (E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and Language Researchers : Essays in honor of Roger Brown*. Erlbaum.
- Piaget, J.(1967). Language and thought from the genetic point of view. In D. Elkind (Ed.), *Psychological Studies*. New York : Random House.
- Tamis-LeMonda, C. S., Bornstein, M. H., Kalman., R., Baumwell, L., & Cyphers, L.(1998). Predicting variation in the timing of linguistic milestones in the second year : An events-history approach. *Journal of Child Language*, 25, 675-700.
- Tomasello, M.(1992). The social bases of language acquisition. *Social Development*, 1, 67-87.
- Werker, J. F., & Tees, R. C.(1984). Cross-language speech perception : Evidence for perceptual reorganization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7, 49-63.

2004년 10월 31일 투고 : 2004년 12월 24일 채택